

지역 신산업 규제 타파

전북중기청, 규제발굴 추진단 열고 기업 간 현장간담회 추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11일 '제2벤처붐' 시대를 맞아 지역 신(新)산업 중소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를 타파하고자 '제1차 전북지역 신(新)산업 규제발굴 추진단(이하 '규제발굴 추진단')'을 개최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규제발굴 추진단은 신(新)산업 분야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 및 경영애로를 해소하고자 전북중기

청, 중진공 전북지역본부, 기보 전주지점, 전북IP 등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회의체다.

규제발굴 추진단이 결성된 후 처음으로 방문한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선정, 탄소법 개정안 통과, 탄소산업 진흥기관의 격상 등으로 지역 먹거리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탄소 융복합을 영위하고 있는 (주)호풍 (주)지킴이퍼지트 (주)세프 등이다.

이날 현장간담에서는 탄소융복합

산업의 비전, 기업별 중점사업, 규제 및 경영애로사항 청취, 참여 기관의 지원사업 안내 등이 진행됐으며, 이날 기업들이 건의한 불합리한 규제들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규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제2벤처붐 시대를 맞아 전북지역의 경제와 산업의 혁신은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지역 내에서 많은 혁신기업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가 완벽히 사라지는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호남지방통계청은 11일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호남지역관리부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2020년 호남 경제총조사 본격 준비태세 돌입

호남통계청, 호남지역 관리부 현판식 열어... 내달 14일부터 진행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이호석)은 11일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호남지역 관리부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총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오는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조사가 진행

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2015년도의 전수조사와 달리 표본조사를 도입해 응답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응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조사(PC, 모바일)와 E-mail, Fax 등 비대면 조사 방식을 적극 활용한 계획이다.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은 "경제총

조사는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를 파악함으로써 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조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 방문조사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등 조사원과 응답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신협 '내 인생의 어부바' 발간

신협 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진행한 '어부바 에세이 공모전'의 수상 작품을 발간했다.

신협과 매거진 여성조선이 공동주최한 공모전은 '내 인생의 어부바'라는 주제로 아래 2020년 9월부터 3개월간 진행했다. 공모 기간 710여 편의 에세이가 접수됐고 심사를 통해 대상(1명), 우수상(2명), 가작(10명) 등 총 13편이 수상 영광을 안았다.



작품집에는 대상작인 허민선 작가의 '내 인생의 어부바'를 비롯해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일상 속 어부바 경험담 23편이 담겼다. 따스한 일러스트를 그려 넣어 포근한 이미지를 더했고 문화 시각 자재에 높은 저서력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서비스도 마련됐다.

허민선 작가는 "어부바라는 주제를 보자마자 버려진 아기와 유기견 치매에 걸린 할머니까지 세상을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품은 부모님이 떠올랐다"며 "본인의 작품은 사소한 일상에서 일어난 인간애의 회복을 담은 어부바 사랑 이야기다"라고 전했다.

심사에 참가한 헤이수 소설가는 "에세이를 읽는 일이 이토록 뜨거운 감정과 만나는 일인 줄 미처 몰랐다. 투고자들이 각자의 인생에 소중히 여기는 사연을 적어내며 웃고 울었을 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랐다"면서 "허전한 고백과 치유가 에세이 쓰기의 묘미이고 한편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총평을 남겼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농촌융복합 안테나숍 프로모션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와 농촌융복합(이하 6차)산업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가정의 달 맞이 프로모션'을 오는 23일까지 농협에서 운영하는 6차산업 안테나숍에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안테나숍은 하나로마트전주점, 전북도청시점, 익산KT지역점, 동진제농협로컬푸드점 등 4개소다. 행사기간 동안 6차산업 인증 경영체의 450여개 품목 중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매장당 400명 한정으로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차산업 인증경영체의 제품에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정의 달을 맞아 질 좋은 전북 농특산물을 구입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6차산업 우수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6차산업 우수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 청년조합원 확대 전략회의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송혁)는 전주·완주 관내 농축협 조합장과 함께 미래농업을 책임질 청년농업인 육성과 조합원 가입 확대를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합운영협의회와 병행 실시한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올해 11월까지를 집중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현황, 청년조합원 유입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농축협 조합원 감소 및 고령조합원 증가 등으로 장애 농축협 사업 기반 약화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 인식을 같이하며, 농업·농촌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의 조합원 가입확대에 전사적 추진을 결의했다.

송혁 지부장과 관내 농축협 조합장들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우리 농업·농촌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청년농업인 육성과 조합원 가입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완주 관내 농축협은 매월 조합운영협의회 릴레이 현장 개최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발굴, 농업인 애로사항 해소, 각종 현안 정보공유 등을 통해 농업·농촌 발전을 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복고 컨셉'으로 도내 전통식품 마케팅 차별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메가쇼서 공동관 운영... 4500만원 매출 실적

전라북도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세텍에서 열린 '2021 메가쇼 시즌1'에서 복고풍 트렌드를 가미한 비혼얌이 상회, 잡방, 전북바이오융합고등학교 등 복고풍 컨셉을 접목한 전통식품 공동관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바이오진흥원은 이 기간 도내 전통식품 기업 20개사의 국내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도와, 약 2억 1,000만원의 계약성과와 약 4,500만원의 현장매출 실적을 올렸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세텍에서 열린 '2021 메가쇼 시즌1'에서 복고풍 트렌드를 가미한 비혼얌이 상회, 잡방, 전북바이오융합고등학교 등 복고풍 컨셉을 접목한 전통식품 공동관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와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행사에서 참가기업 단수지원에서 벗어나 70~80년대 추억의 학교를 모델로 '추억의 집방 반장 선거날 관계자 교복착용' 등 최근 유행하는 뉴트로(새로운 복고경향)트렌드를 접목해 참가사 사전컨설팅, 복고풍 제품개선 비즈니스 마인드 개선 컨설팅, 라이브방송, 홍보콘텐츠 등을 연계한 차별화된 판로개척 마케팅으로 기업 변화에 중점을 두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이번 행사에서 참가기업의 제품 패키지 "그래서 아십니까?"가 복고풍 버전으로 리뉴얼해 변화를 선보였다. (주)홍삼의 떡갈비 제품 '엄마의 죄명명 엄마도 꿈이 있었다' 김비, 식도리푸드 수산가공품 밀키트 '오빠! 오다가요 오다가장', 태인명장 청국장 '슬기로운 청국생활', 장수도깨비 김치 '김치너스' 등 재미있고 소

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도내 전통식품기업의 제품들이 참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현장을 방문한 국내 온·오프라인 바이어들과 열띤 상담도 진행됐다.

또한 국내 온·오프라인 백화점, 마트, 쿠팡, 와디즈 등 대형유통사로부터 전북관의 특관행사 유치 관련 요청도 쇄도했다. 전북관에 찾아온 대형백화점 MIB이아는 "기존 지역 특산물전과 또렷한 차별성이 있어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이오진흥원 판로개척 행사에 처음 참가한 한 기업대표는 "복고풍 '슬기로운 청국생활', 장수도깨비 김치 '김치너스' 등 재미있고 소

고객니즈를 알게 되었고 향후 제품디자인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며 "이러한 차별화된 판로개척 행사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수 원장은 "이번 행사는 전통식품 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의 일부이며, 코로나19 위기상황의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 전통식품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양한 유통 판로개척과 더불어, 현지 소비자들에게 알뜰한 구매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식품산업 수도 전북 전통식품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유통 채널에 접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비래해충 국내 유입 피해 예방

농진청, 베트남·태국에 '스마트 공중포집기' 설치 정보수집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기반 시설이 부족한 아시아지역의 병해충 예방을 지원하고 비래해충의 국내 유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스마트 공중포집기를 베트남과 태국 현지에서 시범 설치해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동성 해충인 멸구류는 물발적으로 발생해 작물에 직접 피해를 주고 바이러스 병을 매개해 피해를 준다. 스마트 공중포집기는 실시간으로 날아오는 병해충의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비다. 농촌진흥청은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국내 40곳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 이동성 병해충을 실시간에 예찰하고, 그 정보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시군 예찰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제때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동식 스마트 공중포집기는 고정식 포집기의 1/4 크기에 조립식이라 이동과 설치가 쉬워 기반 시설이 취약한 국내·외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소비전력을 50% 줄였고 해충 포집을 위

한 흡입력은 높였으며, 2배 이상 화질 개선과 자동 인식을 위한 영상 분석 시스템 기술을 확보했다. 반면, 도입과 운영 관리 비용은 50% 줄였다.

이 공중포집기는 아시아지역 이동성 병해충에 대한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과제를 통해 2017년 베트남 남부 쌀 재배지인 메콩강 삼각주 지역의 티엔장(Tien Giang)주에 설치됐고, 태국은 멸구류 피해가 가장 많은 중부 차이낫(Chai Nat)주에 2018년 설치됐다.

공중포집기 시범 운영 결과, 포집 영상에 원격 육안식별을 통해 비벌구와 흰등멸구의 비래 현황과 시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2019년에는 포집 높이 2m에서 10m로 높여 장거리 이동 멸구류를 관찰할 수 있도록 보완됐다.

베트남과 태국에서 실시간 수집된 정보는 각국의 멸구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 멸구류 비래 실시간 감지 시스템(<http://www.smarttrap.kr>)과도 연계해 병해충 이동 경로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 간 공동 대처로 실질적인 방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기자

'고창한우' 판매행사 추진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시중)은 광주 수완 롯데아울렛에서 축산농가 돕기 고창한우 판매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한 직거래 정터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가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다.

김시중 조합장은 "우리 축협이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양질의 사료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소비자들께서 고창한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MG원새마을금고

취약계층 아동 장학금 지원

MG원새마을금고(이사장 우기만)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사랑 가득한 마음을 담아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자신의 꿈을 위해 정진하는 초·중·고·대학생 55명에게 2,750만원의 희망장학금을 지원한다.

수혜 대상자는 남원시 관내 가정위탁 및 취약계층 아동으로 각 5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소창호 이사는 "이번 후원이 관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학업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따뜻한함을 함께 나누며 상생·발전하는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취주 시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MG원새마을금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이번 장학금 지원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바"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BNY 멜론은행, 대학생 금융아카데미 열어

전북도와 BNY멜론은행은 11일 전북대학교에서 BNY멜론은행 임직원이 강사로 참여한 대학생 금융아카데미를 개최했다.

1988년 서울 지점 개설로 한국 시장에 진출한 BNY멜론은행은 이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경기 지역에서도 다양한 지역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시행해 온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북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대학교 등 지역 대학생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금융아카데미는 글로벌 금융서비스기관인 BNY멜론은행 및 BNY멜론 투자자문에 대한 회사 소개와 소속 임직원들이 패널로 직접 참여하는 자유로운 대담 형식의 취업멘토링 특강으로 진행됐다.

특히 취업 멘토링에서는 글로벌 금

융기관에서 직접 근무한 임직원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채용과정, 이력서 작성 방법, 미래 금융업 전망, 직장 문화 적응을 위한 조언 등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계 금융기관에서의 근무환경 비교나 채용과정의 인터뷰 사례 등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생생한 담화에서 학생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BNY멜론은행은 전북도의 금융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첫번째 글로벌 금융서비스기관으로 5월 중 전주대학 글로벌 금융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BNY멜론은행 서울지점 견학 및 동계 인턴십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